

日本 正倉院의 刺繡와 그 製作國

Embroideries in Shoso-in of Japan and their Maker

東國大學校 家政教育科

教授 李 春 桂

目 次

I. 머리말	IV. 맺는말
II. 正倉院 소장의 刺繡	참고문헌
III. 正倉院 이외에 소장된 古代 刺繡	ABSTRACT

I. 머리말

韓國은 현재 古代의 刺繡가 소장되어 있지 않으나 日本에는 正倉院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7·8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刺繡가 소장되어 있다. 즉 日本에서 일본 最古의 刺繡라고 말하는 天壽國繡帳을 위시하여 繡佛자수나 鬼面連珠圓紋刺繡 그리고 釋迦說法圖刺繡 등을 소장하고 있다. 正倉院에는 수많은 천의 잔결이 전해지는 가운데 花喰鳥紋刺繡·孔雀紋刺繡·蝶花紋刺繡幟頭·刺繡飾天蓋·刺繡羅帶·繡線鞋 등 고급 비단에 수놓은 물품들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밖의 장소에서는 天壽國刺繡와 繡佛裂 그리고 釋迦說法圖刺繡 등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正倉院 소장의 刺繡의 특징과 그 제작국에 대하여 살펴 본 다음 正倉院 이외의 장소에 소장된 日本의 7·8세기의 刺繡의 특징과 제작국에 대하여 문헌과 전시도록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正倉院 소장품 가운데 服飾(染織物 포함)에 관한 본인의 일련의 논고 가운데의 하나이다. 그리고 正倉院 服飾에 관한 본인의 일련의 고찰은 服飾을 제외한 正倉院 소장품의 연구와¹⁾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인은 본고 전에 이미 日本의 古代服飾, 日本의 衣服令 制定과 正倉院 服飾, 紋樣을 통해본 正倉院의 染織, 正倉院의 袷裳, 正倉院 服飾의 釋迦結(연봉대듭), 正倉院의 幟旗 등의 논고를 완성하여 그 일부는 발표하였다.²⁾ 따라서 본 논제를 다루게 된 배경에 대하여는 재론하지

1) 服飾 이외의 正倉院 소장품의 제작국에 대하여는 崔在錫,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一志社, 1995, 참조.

2) 李春桂, 日本의 古代服飾, 崔在錫 교수 停年退任紀念論叢, 「韓國의 社會와 歷史」, 서울: 一志社刊, 1991,

_____, 日本 正倉院 소장 服飾類와 統一新羅와의 관계-日本의 報告를 중심으로-, 「教育問題研究」 8, 東國大學校 教育問題 研究所, 1993.

_____, 日本의 衣服令과 正倉院의 服飾, 「東國論叢」 32, 1993.

_____, 日本 正倉院 소장 服飾의 釋迦結에 관하여, 「日本學」 13, 東國大學校 日本學 研究所, 1994.

_____, 崔在錫, 正倉院의 染織과 그 製作國, 「東國論叢」 33, 1994.

_____, 正倉院의 服飾과 染織-紋樣을 중심으로-, 「韓國服飾」 13호, 檀國大學校 石甯善民俗博物館, 1995.

_____, 日本 正倉院의 袷裳의 製作國, 「대한가정학회지」 33권 3호, 1995.

얇기로 한다.

II. 正倉院 소장의 刺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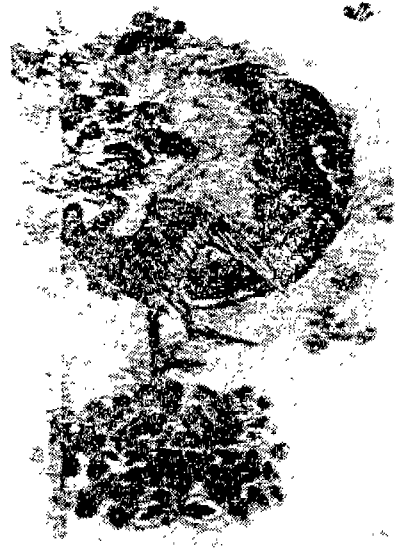
正倉院에는 현재 8世紀 中葉의 것으로 보이는 花喰鳥紋刺繡 殘片, 孔雀紋刺繡 1片, 蝶花紋刺繡 幡頭, 刺繡飾天蓋, 刺繡羅帶, 繡線鞋 등의 자수가 소장되어 있다. 다음에 차례로 각각에 대하여 간략한 특징과 함께 그 제작국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花喰鳥紋刺繡 殘片

봉황이 꽃을 물고 꽃 위에서 서 있는 모습을 크게 나타낸 자수이다. 이 자수는 正倉院의 8世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시기의 자수는 刺繡絲에 꼬임이 거의 없는 細絲를 사용하였으며, 平繡를 主體로 하면서 葦縹配彩(바림염=渲染)를 많이 사용하는 등 繪畫風 情緒를 짙게 풍기고 있는 것이 많다.³⁾

花喰鳥紋刺繡殘片은 역시 平繡를 基調로 하고 있으나 군데군데 사슬수가 섞여 있다. 金·銀絲를 併用하였으며 10여색에 가까운 색실을 濃淡각종의 葦縹에 배치하고 있고, 그림의 모양이 雄大함과 순찬함을 보이고 있다.

바탕 천은 白羅이고 그 밑에 白絨을 2枚 겹쳐 모두 3枚 위에 수를 놓은 것이다. 새의 길이는 40cm, 바탕 천의 현재의 길이는 80cm, 폭이 63cm 인데, <그림 1>에 보이는 바와같이 左側에 이음새가 있어, 그 부분에도 자수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상당히 大型인 것으로 보인다.⁴⁾



<그림 1> 花喰鳥紋刺繡裂片 (註 3의 책, p.118, #99)

자수의 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紫·赤·白·靑은白茶·藍·綠·茶紫·黃 등의 多色이며⁵⁾ 윤곽과 부리는 金絲, 가슴은 金絲·銀絲를 사용하여 찬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봉황의 문양은 統一新羅의 전통인 봉황과⁶⁾ 유사하고 봉황이 밝고 있는 꽃의 형태는 京都大學이 보고한 統一新羅의 기와문양 #608의 문양과⁷⁾ 흡사하다.

2. 孔雀紋刺繡 1片

이 자수는 紫綾의 바탕천에 花草·孔雀·花樹를 수놓고 있다<그림 2>. 繡法은 花喰鳥紋刺繡와 같이 平繡를 主體로 하였으나 가는 선을 나타내는 경우는 사슬수법을 병용하고 있으며, 이 자수는 후세까지도 대단히 어렵다는 양면자수로서 도안

3) 松本包夫,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紫紅社, 1984.

4) 上掲書 참조.

5) 新羅人の 다양한 色彩感覺에 대하여는 李春桂, 崔在錫, 正倉院의 染織과 그 製作國, 「東國論叢」 33輯, 1994 참조.

6) 崔在錫,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一志社, 1995.

7) 京都帝國大學,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文學部, 1934.



〈그림 2〉孔雀紋刺繡殘片 (그림 1의 책, p.121, #100)

이나 기법 모두 8세기의 대표적인 자수라고 할 수 있다.⁸⁾ 그리고 絹絲 특유의 광택이 실을 길게 건넌 平繡技法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 보여 한층 우아함을 느끼게 한다. 형태로 보아 幡身의 일부로 보인다. 바탕천은 雙獅子·飛雲·꽃 등을 그린 紫綾이며 赤·綠·藍·黃·白 등의 색실(色絲)로 孔雀·花樹를 두겹게 수놓았다. 색깔의多樣性⁹⁾·孔雀·花草의 문양과 雙獅子·飛雲문양의 등장은 統一新羅의 것과 유사하다.¹⁰⁾ 日本은 752년에도 자체적으로 색료를 생산할 수 없어서 신라의 여러가지 색료를 구입하였으나 염직물에는 사용하지 않았다.¹¹⁾

3. 蝶花紋刺繡幡頭

이 刺繡는 羅製 道場幡의 幡頭に 수놓은 것이다 (그림 3). 刺繡方法은 앞의 두 종류의 것과 큰 차



〈그림 3〉蝶花紋刺繡幡頭 (그림 1의 책, #101)

이는 없으며, 좁은 면적에 수를 놓은 것이므로 문양이 잘려있기는 하나, 큰 꽃이 피어있는 모양은 唐花紋錦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크게 수놓은 꽃의 문양은 京都大學이 보고한 新羅의 平瓦문양 #630과 유사하다.

新羅는 비단 統一新羅 때 뿐만 아니라 이보다 훨씬 이전인 古新羅 때부터 刺繡가 일반화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三國史記」가 전해 주고 있다.

- 炤智 22年(500) 7月, 王은 捺己郡(榮州)에 행차하였다. 그런데 郡民 波路라는 사람에게는 16歲된 딸이 있어 이름을 碧花라 하였는데 國色으로 실로 아름다웠다. 이때 아버지 波路는 碧花에게 비단과 수놓은 의복을 입히고 수레에 싣고 비단으로 둘러 싸서 王에게 바쳤다(下略).
- 眞德 4年(650) 4月 王은 비단을 짜서 거기에

8) 松本包夫의 前掲書 참조.

9) 李春桂·崔在錫의 前掲書 참조.

10) 新羅의 孔雀·雙獅子·飛雲문양에 대하여는 註 4 및 5 참조.

11) 崔在錫, 色料를 통해본 正倉院 소장품의 製作國,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5, 1995.

五言詩의 太平頌이라는 수를 놓아 金春秋의 아들 法敏을 과견하여 唐高宗에 선물하였다.

위의 前者의 記事는 王族이나 貴族은 물론이려니와 일반 백성도 비단에 수놓은 衣服을 입을 수 있었으며 後者의 記事는 新羅의 비단과 繡가 뛰어나 中國 朝廷도 이를 높게 평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4의 부분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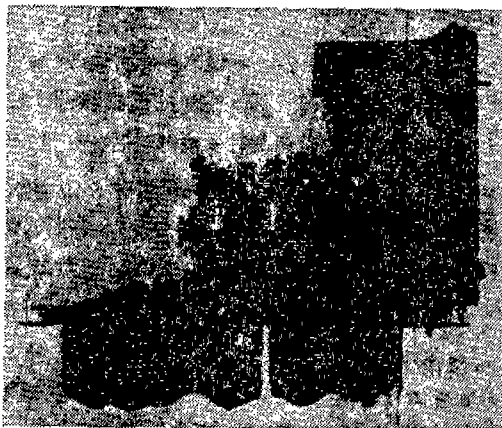
4. 刺繡飾天蓋殘缺(黃綾地寶相華紋刺繡)

天蓋의 垂飾의 일종으로 佛堂 天井에 달려있는 天蓋의 가상사리에 느려뜨린 천에 자수한 것이다 <그림 4>. 꽃가지와 잎 줄기에 사슬수(Chain-stitch) 수놓은 이외에 平繡의 수법이 적용되고 있다. 수실을 거의 꼬임이 없는 유연한 絹絲이므로 풍부한 葦縹配色과 더불어 典雅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이 문양의 특징이나 자수법 등이 한국 특유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상당히 친근함을 느끼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정 표면은 白縹이고 안은 葡萄唐草紋의 白縹으로 되어 있는데, 가상사리는 吉字風 문양의 자수와 綠·黃 등 諸色交

織의 平織物이다. 前者의 가상사리 外側에는 곁에 寶相華風의 刺繡, 안에는 紫綾과 2重의 垂飾이 달려 있다. 後者의 外側에도 刺繡와 가늘게 만들어진 가상사리의 흔적이 있으며, 원래는 四方에 垂飾이 둘러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垂飾의 寶相華風 문양은 실제로 걸었을(懸架) 때 刺繡한 꽃모양이 모두 밑을 향하도록하여 마치 하늘에서 훑날리는 꽃을 나타내는 듯하다.

5. 刺繡羅帶

이상에서 소개한 刺繡 이외에도 작은 잔걸로 전해지는 것이 몇가지 있다. 즉 羅織 위에 수놓은 帶가 있고, 신발에 刺繡를 놓은 繡線鞋가 있다. 羅帶는 2종류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다소 黃色 기미의 褐色地夾縹染의 羅와 綠色 기미의 褐色地夾縹羅를 중앙에서 길이 방향으로 縫合하여 두 겹으로 만들고 그 위에 자수를 놓은 것이다. 이 자수는 數色の 絹絲를 창살문양을 사선으로 배치하고 사이사이에 작은 꽃을 배치한 것이다. 대단히 섬세 화려한 취향의 刺繡帶이다. 현재 한 끝은 缺損되어 있으나 다른 한쪽 끝은 완전하여 紫色 선염(渲染-보카시)의 花葉形의 자수가 되어 있다. 貴人의 盛裝用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 帶에 끈목(組紐)형태의¹²⁾ 佩飾이 달려있었던 것



<그림 4> 刺繡天蓋 (1986년 正倉院展, p.40, #21)

12) 奈良博物館, 1991년 「正倉院展」 #33.

로 여겨진다.¹³⁾

다른 하나의 帶는 褐色의 夾纈染羅와 紺藍色(오리부색)의 夾纈染의 羅를 교대로 군데군데 V字形으로 이어 만든 帶로 兩面에 花鳥紋의 자수를 놓고, 空間에는 金銀泥의 그림으로 나비, 꽃, 구름 등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5). 帶 끝의 징금장식은 花葉形의 자수이다. 帶芯에는 蘇芳色의 絁를 사용하고 있다. 부연하면 寶庫 傳存의 琥珀製魚形 佩飾의 끈에는 이 帶와 꼭 같은 羅帶의 殘片이 묶여 있다. 이로 미루어 이 帶에도 원래는 여러가지 佩飾인 犀角製小舎子나 유리小尺, 水精玉(正倉院展 1983, #40, #41, #42) 등이 달려 있었을 것이다. 이 帶는 지금은 4片으로 分斷되어 있으나 전부 연결하면 길이 약 260cm에 달한다.¹⁴⁾ 이 帶에는 統一新羅 문양의 특징인 飛雲문양과 꽃가지를 문 飛鳥의 문양을 볼 수 있어 統一新羅製임을 알게 하는 物品이라 하겠다.



〈그림 5〉 刺繡羅帶 (1991년 正倉院展, p.72, #31)

6. 繡線鞋

이는 刺繡로 장식한 굽이 낮은 布製의 신발로, 麻布에 종이를 겹쳐 대체적인 형을 만들고, 밑바닥과 발바닥은 綠絁를 붙혀 꼬매고 그 외의 부분은 모두 錦을 붙이고 있다. 그리고 발 끝 부분에는 麻布로 만든 花形 刺繡를 하였고, 또한 종이노끈(紙撚)에 錦을 감은 끈목(紐)이 신발 굽(甲履)의 가상사리부터 左右의 길이측 가상사리에 걸친 三면을 두르고 있다. 外側의 錦은 赤地에 花鳥紋, 內

側은 靑地 錦이지만 전체 모양은 알 수 없다(그림 6). 이 신발은 756년(天平勝寶 8년) 7월 26일의 왕후 光明의 獻納品으로 「獻物帳」에 「繡線鞋 捌(八)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원래는 모두 8두이 있었으나 4족이 出庫되어 반환되지 않고 현재는 4足만이 남아 있다.¹⁵⁾



〈그림 6〉 繡線鞋 (1991년 正倉院展, p.58, #133)

Ⅲ. 正倉院 이외의 古代 刺繡

현재 日本의 中宮寺, 東京國立博物館, 叡福寺, 奈良國立博物館에는 각각 天壽國繡帳殘缺, 刺繡佛龕, 鬼面連珠圓紋刺繡, 釋迦說法圖刺繡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수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天壽國刺繡 殘缺(日本 中宮寺 소장)

天壽國繡帳은 完形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여러 개의 殘片으로 남아 있다. 天壽國繡帳 가운데 가장 크고 저명한 것이 中宮寺에 소장되어 있는 세로 2尺 9寸 3分, 가로 2尺 7寸 4分의 額表裝의 것이고, 다음에 1920년 일본 宮內省에서 中宮寺에 下賜된 유리에 끼운 것 2개를 들 수 있다. 후자는 3인의 坐像을 나타낸 斷片 1개와 龜甲 1개이다. 이 밖에 法隆寺 소장의 眞紅의 筒袖의 옷을 입고 흰

13) 奈良博物館, 1992년 「正倉院展」 #32.

14) 奈良博物館, 1984년 「正倉院展」 #36.

15) 松本包夫,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紫紅社, 1984, 그림 #133.

색의 허리끈(腰紐)를 묶은 半身像, 東京博物館 소장
의 총화문(葱花紋)을 옆으로 연결시키고 아래
에 連珠紋을 나타낸 斷片과 龜甲·蓮花·蓮葉·
飛鳥 등을 나타낸 것이 있으며, 藤田美術館 소장
의 飛翔하는 天人像과 龜甲圖 1개가 있으며, 京都
의 川都織物研究所 소장의 몇개의 斷片이 있고 또
正倉院에 수 개의 斷片이 4면의 유리 사이에 끼워
져 보존되어 있다.¹⁶⁾

日本에서는 7世紀 前半의 작품으로 보고 있으나
역시 7世紀 後半 이후 즉 統一新羅의 작품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한 견해일 것이다. 이 繡帳은 가마구
라(鎌倉) 시대에 새로운 보충 자수가 가해져 현재
新古 兩者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
이다.

지금까지 天壽國刺繡는 新羅人和 高句麗人이
만들었다 거나 또는 日本(大和倭)에 渡來(歸化)
한 新羅人和 高句麗人이 만들었다는 주장이 主流
를 이루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新羅人이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① 4세기 후반부터 663년 百濟와 大和倭의 관계
나 668년부터 900년까지 즉 統一新羅와 日本
과의 관계로¹⁷⁾ 보아서 이른 바 「歸化人」 내지
渡來人이 만들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752년에도 日本은 여러 가지 染料와 顏料를
新羅로부터 구입한 것을 보면¹⁸⁾ 7世紀를 포
함하여 그 이전에는 日本은 染料와 顏料를
생산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된다. 日本이 염료
나 안료(색료)를 생산하지 못하여 신라로부
터 각종 색료를 구입하였으나 이것을 직물에
사용할 줄 몰라 전혀 염직물을 생산하지 못
하였다.¹⁹⁾

② 天壽國曼多羅의 銘文 끝에 高麗加西湓이라
는 이름이 있는데 「高麗」라는 冠詞가 있다고
하여 이것 하나를 근거로 高麗加西湓을 高句
麗人으로 보기는 어렵다. 出生은 또는 본래
의 國籍은 高句麗人이었다고 하더라도 統一
新羅 이후에는 新羅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高句麗에서 생산한 錦이 統一新羅 이후에도
영토에 편입되므로써 여전히 「高麗錦」이라
고 칭하는 것을 보아도 이 사실을 알 수 있
다.

③ 天壽國繡帳에는 佛像·僧侶·菩薩·比丘尼
·男子·女子·四天王幡·거울 등의 문양과
飛天(天人)·蓮花·龜甲·飛雲·飛鳥·鳳
凰 등의 문양이 존재한다. 즉 불교의 내용을
담은 刺繡로 正倉院의 소장품이 대개 불교와
관련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문양의 종류도
正倉院 소장품의 문양과 동일하고 新羅의 문
양으로 기와(瓦)·石塔·石燈·浮屠 등에
자주 등장하는 문양과 일치한다.²⁰⁾ 여기서는



7-1

16) 林幹彌, 「天壽國繡帳復原」, 『南都佛教』 8,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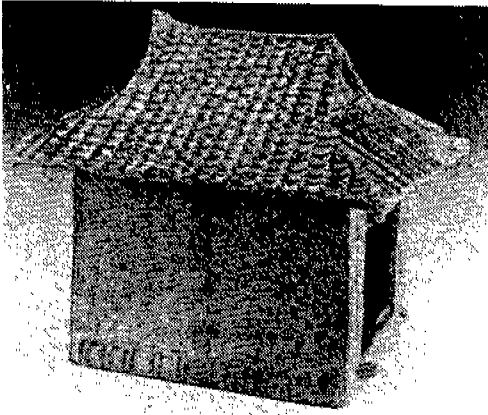
17) 崔在錫, 「百濟의 大和倭와 日本化過程」, 一志社, 1990년 참조.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關係」, 一志社, 1993, 참조.

18) 東野治之,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1989, pp.313~314 및 註 9 참조.

19) 李春桂, 崔在錫, 日本 正倉院의 染織과 그 製作國, 『東國論叢』 33, 1994.

20) 崔在錫,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一志社, 1995.



7-2

색채가 다음과 같이 15종이나 되는 것도²¹⁾ 이 繡帳이 新羅製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앞의 ① 항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752년에 도 일본은 색료를 생산하지 못하였다.

〈天壽國繡帳에 사용된 色彩〉

白

黃系統--淡黃·黃·濃黃·茶

赤系統--淡紅·紅·臙脂

綠系統--淡綠·綠

靑系統--淡靑·濃靑·紺

紫

黑

⑤ 奈良시대(8世紀)의 다음 시기인 平安시대는 刺繡뿐만 아니라 染織品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에²²⁾ 의해서도 奈良시대 내지 그 이전 시대의 刺繡는 日本에서 제작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日本人이 말하듯 日本에서 刺繡가 발전한 결과 8世紀의 자수가 출현하였다면 인접시대인 平安시대에도 자수가 성행했어야 할 것이다.

2. 刺繡佛전(裂)(東京國立博物館 소장)

이 繡佛裂은 小幡이라고도 하고 天蓋의 垂飾이라고도 한다. 본래 日本 法隆寺에서 전해 온 것이며, 현재 그 斷片은 法隆寺·東京國立博物館이나 各地의 大學 美術館에 分散되어 있다. 이 그림의 斷片은 國立博物館 소장품이다(그림 8). 바탕 천은 經絲와 緯絲에 強撚絲를 사용하여 천 표면에 오돌도푼한 무늬가 나타나 있는 平繡이다. 刺繡法은 꼬임사를 사용하여 아우트라인스티치로 수놓았으며, 天衣나 身體部位 등 각 부분마다 방향을



7-3

〈그림 7〉天壽國曼多羅刺繡片(그림 1의 책, p.111, #94)

家屋紋의 형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家屋 문양은 慶州에서 출토된 전돌로 만든 家屋과 너무도 흡사하고, 특히 건물의 상층부인 기와와 지붕 부분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1, 7-2, 7-3 참조〉.

④ 刺繡의 색채가 다음과 같이 15종이 된다.²¹⁾ 이것은 뛰어난 新羅人の 색채 감각과 그 다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교관계의 문양이 등장하는 것도 그러하지만 이 수장의

21) 明石染人, “天壽國繡帳の考察(續)”, 『東洋美術』5, 1930.

22) 松本包夫의 前掲書 참조.

23) 切田 健, 『興福院所藏刺繡掛袂紗—日本の刺繡の流れについて—』, 紫紅社, 1992.

바꾸어 수놓았다.

東京國立博物館 소장의 繡佛裂의 佛像은 국립 경주박물관 소장의 聖德大王神鐘이나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寶相寺 銅鐘의 飛天像 奏樂像 등과 그 構圖가 같다(그림 8-1, 8-2, 8-3). 天衣나 瓔珞(日本の 繡佛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다)의 표



8-1

8-2

〈그림 8〉 繡佛裂(그림 1의 책 #95, #96)



8-3 聖德大王 神鐘 飛天像
(국립경주박물관 그림 #318)



8-4 寶相寺 銅鐘 飛天像(韓國美術全集 8, 그림 #7)

현, 佛衣를 下半身體에만 걸치고 上體에는 佛衣를 걸치지 않은 모습, 佛像의 座臺에 蓮花臺의 표현 그리고 걸가부좌 또는 한 쪽 무릎을 세우고 있는 표현 등은 統一新羅의 銅鐘에 浮彫된 것과 同一 構圖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鬼面(獅噬)連珠圓紋 刺繡(叡福寺 소장)

日本에서는 「鬼面」連珠 대신에 「獅噬·사요」連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獅噬보다는 鬼面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이다. 도꾸가와(徳川) 시대에 法隆寺에서 현재의 소장지 叡福寺(叡福寺)로 옮겨졌다. 刺繡法은 체인스티치로 全面을 메우고 있다. 連珠圓紋 속에 담고 있는 鬼面의 모습은 統一新羅의 것 그대로 이다(그림 9-1, 9-2). 連珠圓紋은 그림 10-3에도 나타나 있고 慶州 博物館의 뜰에 소장되어 있는 「立樹雙鳥紋」이 새겨져 있는 石造物에도 나타나 있으며²⁴⁾ 鬼面은 慶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鬼面(京都大學報告 #252의 문양)과²⁵⁾ 흡사하다.

24) 「국립경주박물관」, 1989, 그림 #320.

25) 京都帝國大學, 前掲書 참조.



9-1



9-2 鬼面(新羅古瓦 그림 #518)

<그림 9> 鬼面(그림 1의 책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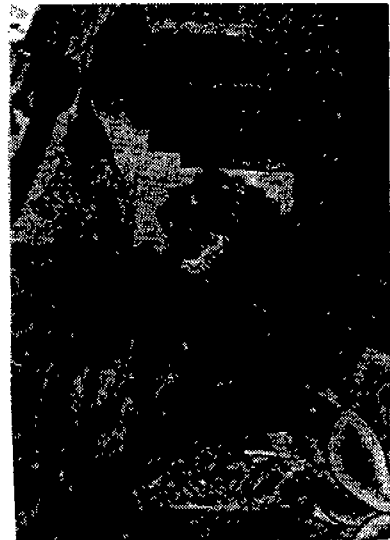
4. 釋迦說法圖刺繡(奈良國立博物館 소장)

畫面 중앙 獅子座에 앉아 있는 如來의 주위를 多數의 天人·菩薩·僧侶·俗衆이 둘러싸고 있는 매우 복잡한 繪畫의 그림이다(그림 10-1). 刺繡 전체의 분위기가 如來像은 高麗佛畫와 유사하다.

26) 如來 양 발 앞에 앉아 있는 雙獅子(그림 10-2)는 慶州 雁鴨池에서 출토된 남석계 향로 뚜껑의 獅子像과²⁷⁾ 흡사하고, 雙獅子在 앞아 있는 바침대(座臺)의 唐草 문양(그림 10-2)은 京都大學이 보고한 新羅의 平瓦문양 #518(그림 10-4)과²⁸⁾ 그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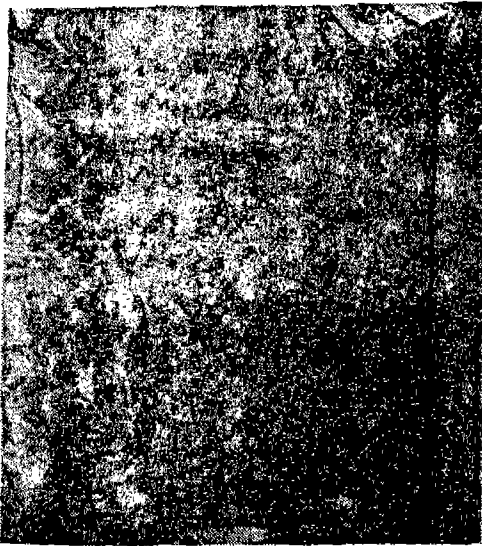


10-2 雙獅子座臺 문양

26) 호암갤러리, 「高麗, 영원한 美」(高麗佛畫 特別展), 1993.

27) 「국립경주박물관」, 1989, 그림 #231.

28) 京都帝國大學, 前掲書.



10-3 如來像 등받이 連珠圓紋



10-4 平瓦의 唐草紋(新羅古瓦 그림 #518)

〈그림 10〉 釋迦說法圖刺繡(그림 1의 책 #98)

리고 如來像의 등받이의 連珠圓紋(그림 10-3)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경주 박물관 소장 「立樹雙鳥紋」의 문양과 흡사하다. 飛雲 연꽃 등의 문양도 統一新羅의 문양과 유사 내지 동일하다.

IV. 맺는말

앞에서 日本 東大寺의 正倉院에 소장된 刺繡와

日本 東京國立博物館 등 正倉院 이외의 장소에 소장된 刺繡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아울러 그 製作國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新羅는 이미 古新羅 시대의 民間人도 화려한 자수를 수놓아 사용하였으며 또한 刺繡에 놓아진 각종 動物 植物의 문양은 統一新羅의 각종 문양과 유사 내지 동일하였다. 752년에도 日本은 색료를 생산하지 못하는 반면 統一新羅는 물론이고 古新羅 때부터 다양한 색료를 개발하여 각종 염직이나 공예품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볼때 正倉院 등의 여러가지 색채의 刺繡도 染織物과 마찬가지로 統一新羅제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刺繡도 넓은 의미의 染織物의 하나이다. 正倉院의 염직물이 新羅에서 만들어 졌다면 刺繡도 新羅製임을 틀림없을 것이다.

본고는 문양의 시각에서 正倉院 소장 刺繡의 제작국을 살펴 보았지만 이밖에 正倉院 染織 工藝品 제조에 사용되는 色料는 日本에서 생산되는가, 正倉院 染織 工藝品의 技法은 8·9세기에 계승되었는가, 輸出品을 통해본 統一新羅와 日本의 染織物의 수준, 日本이 구입한 신라물품의 내용, 일본사신이 唐에서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가 등의 시각에서 다루면 正倉院의 服飾類의 제작국은 더욱 명백히 들어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正倉院 소장 服飾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正倉院의 여러 물품에 대하여서도, 또한 여러 시각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 李春桂, 崔在錫, “正倉院의 染織과 그 製作國”, 「東國論叢」 33, 東國大學校論文集, 1994.
- 林幹彌, “天壽國繡帳復原”, 「南都佛教」 8, 1960.
- 崔在錫, 「百濟의 大和倭와 日本化過程」, 一志社, 1990.
- _____,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關係」, 一志社, 1993.
- 京都帝國大學,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文學部, 1934.

- 「국립경주박물관」, 1989.
- 同和出版社, 「韓國美術全集」 8, 金屬工藝, 1974
- 中央日報(季刊美術), 韓國의 美 23, 「金屬工藝」, 1991
- 호암갤러리, 「高麗, 영원한 美」(高麗佛畫 特別展), 1993
- 切畑健, 「興福院所藏刺繡掛袱紗--日本の刺繡の流れについて--」紫紅社, 1992
- 東野治之, 「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1989
- 松本包夫,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紫紅社, 1984
- 明石染人, “天繡國繡帳の考察” 「東洋美術」 4, 1930
- 明石染人, “天繡國繡帳の考察(續)”, 「東洋美術」 5, 1930
- 奈良博物館, 1986년 「正倉院展」.
- 奈良博物館, 1984년 「正倉院展」.
- 奈良博物館, 1991년 「正倉院展」.
- 奈良博物館, 1992년 「正倉院展」.

ABSTRACT

Embroideries in Shoso-in of Japan and their Maker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of Dong-guk University
Prof. Lee, Choon-Gye

After I stated the kinds of ancient embroideries of Shoso-in and the other places in Japan, including Silk embroidered design of a bird(花喰鳥紋刺繡), Silk embroidery on a silk ground(天繡國繡帳), and Buddha preaching(釋迦說法圖刺繡), I searched for the possible countries they could have been made in. I found that Japan merely imported the dyes and paints from Korea. On the other hand, Korea unlike Japan, was capable of manufacturing the embroideries from early times.

The embroideries in Shoso-in and the other place, have respectively on them the old Korean types of patterns such as flowers, lotuses, flying clouds, phoenixes, intertwined lions, houses, ghost masks, fairies and turtles, seen often on the titles of Silla.